효성, 세빛섬 봄꽃 축제 개최 효성은 오는 5월 26일까지 '세빛 스프링 블라썸'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축제 기간 세빛섬은 곳곳에 감성적인 문구를 새긴 봄꽃 화분과 LED 장미 3650송이를 심어 매일 사랑이 꽃핀다는 의미를 담은 정원, 붉은 장미 터널을 설치한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에는 '세빛 플리마켓'을 연다. 주말 저녁에는 실력파 인디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도 마련했다. 플리지와 파랑망또, 천석망 등이 참여한다. /효성

현대오일뱅크, 장애인 사우 가족과 봄 나들이 현대오일뱅크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전국 직영주유소 세차도우미로 근무 중인 장애인 직원과 가족들을 초청해 봄 나들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 사우 봄 나들이'는 현대오일뱅크가 2012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는 행사로 올해도 직원과 가족 등 40여 명이 참가해 봄 기운을 만끽했다. /현대오일뱅크

IBK기업은행, 미얀마 교육환경 개선 봉사활동 IBK기업은행은 22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제15기 글로벌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미얀마 양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금 3억30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임직원 82명으로 구성된 15기 자원봉사단은 오는 27일까지 현지에서 학교신축, 건물 도색, 문화교류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하이트진로, 청년창업리그 결선 12팀 선발 하이트진로는 외식업 및 식품 창업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인 '청년창업리그'의 결선에 출전할 12팀을 최종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2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아이디어 신청 접수를 받아 1차 서류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통과한 24개팀이 사업기획안을 직접 발표하는 본선 대회에 진출했다. 청년창업리그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아워홈, 서울숲에서 나무심기 봉사활동 아워홈은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아워홈 행복나눔 봉사단' 30여명은 서울숲커뮤니티센터 인근에 산수국, 백철쭉, 영산홍 등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관목류 약 500주를 심고, 산책로 옆 화단에 화관목을 심어 경관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쳤다. /아워홈

시니어세대 창업 경쟁력

이상헌의 칼럼

'서울 고령화, 2030년이면 환갑 넘긴 인구 320만명', '한국,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2020년 노인 비율 세계 2위',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고령화 국회' 등 지난 몇달간 쏟아진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이다.

고령화를 해결 할수있는 대안은 시니어들에 대한 창작과 창업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사회지원제도의 실천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시니어창업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꾸준히 창업이나 재취업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다. 미국 같은 경우 55~64세 창업은 1996년 14.3%에서 2013년 23.4%로 늘었다. 45~54세 그룹을 포함하면 시니어창업은 53.4%에 이른다.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자신의 경력에서 사업의 기회를 찾고, I T·플랫폼 등 돈이 되는 유망 분야 창업보다 사회에 기여하는 소셜 창업이 많다는 게 미국 시니어창업의 특징이다. 미국도 고령화와 맞물려 시니어창업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떠한 프로그램을 점검하고있는가? 대표적인 융복합 창업지원제도가 있다. 시니어를 인턴이 아니라 창업 파트너로 모시는 정책이다.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년에 선보인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경력 10년 이상 40세 이상의 퇴직자가 청년과 팀을 이뤄 세대융합 방식으로 창업할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키고 멘토링을 해준다. 30대의 젊은 CEO는 경륜 있는 시니어 멤버로부터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소중한 경험을 배울수 있는 장점이 있다. 60대의 대표도 패기 넘치는 젊은 파트너가 첨단 정보화기술을 활용해 온라인과 모바일 마케팅 부분을 도와주니까 시너지 효과가 크다.

'60세 이상만 고용합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일본 가토제작소의 사례를 보면, 납기를 맞추기 위해 60세 이상 파트타이머들을 모집했는데 예상보다 경쟁률이 훨씬 높았으며, 시니어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출근하고 하루에 4시간, 1년에 90일 근무했다고 한다. 고령자 고용 덕분에 공장을 365일 가동할 수 있게 된 이 회사의 근무자 평균연령은 평일 39세, 주말 65세다.

시니어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우수하다. 하지만 생물학적 나이와 시각적 노동력 보유기준으로 많은 부분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올해부터 개설한 건국대 시니어창업전문대학원도 좋은 시니어자원들에 대한 전문적 창업교육과 실천프로그램이다.

시니어는 곧 산업의 주인공으로다시 회자될수밖에 없는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사회로의 재배치와 실천적 융합프로그램의 조기 정착을 기대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이대서울병원

뇌하수체종양 명의 김선호 교수 영입

2600례 이상 국내 최다 수술
완치율 부문서 세계 최고 수준

이대서울병원은 최근 우리나라 뇌하수체종양 수술 분야 최고의 명의인 김선호 교수를 영입했다. 지난 2월 진료를 개시한 이대서울병원이 5월 23일 정식 개원식을 앞두고 중증 질환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

이번에 영입된 김선호 교수는 197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미국 텍사스대학에서 연수 후 세브란스병원에서 뇌종양과 뇌혈관 치료 분야를 발전시켰다. 특히 뇌하수체종양 분야에 온 힘을 집중해 국내 뇌하수체종양 수술과 임상연구 분야를 선구적으로 이끌었다.

김 교수는 2600례 이상의 국내 최다 뇌하수체종양 수술을 시행했고, 특히 완치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며 뇌하수체종양 수술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김선호 신경외과 교수

또 질환 특성상 기존에 정립되어 있지 않은 뇌하수체종양의 수술 치료법 및 수술 후 치료와 관련된 표준화된 평가법을 논문화해 실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고, 새로운 수술 술기 및 기구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뇌하수체종양 수술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아울러 내분비내과와의 협진으로 뇌하수체종양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뇌하수체 종양에 있어 내분비내과와 신경외과의 협력 진료 및 공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김 교수는 전 세계의 뇌하수체종양 수술의 대가들의 모임인 ISPS(International Society of Pituitary Surgeons)의 국내 유일의 회원으로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해 한국 뇌하수체종양 수술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계신경외과학회 신경내분비분과 위원회 위원, 다수의 신경외과학 학술지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문형돈 IITP 기술정책단장 정보통신 발전 '대통령 표창'

문형돈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장(사진)이 2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년 과학-정보통신의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문 단장은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원천인 국가 ICT 수립을 지원하고 K-ICT협의회, IT정책자문단회의 등을 통한 대국민 책 소통에 기여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이 행사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는 과학-정보통신인의 축제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아젠다로 내세웠다.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장급 전보 △통신경쟁정책과장 엄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상임이사 이갑돌

◆**세종문화회관** ◇사장 직속 △홍보마케팅팀장 김영환 △E.S추진단장 한성국 ◇경영본부 △정책기획팀장 유현승 △인사혁신팀장 문경아 △재무회계팀장 정윤상 △시설운영팀장 이상하 △안전관리팀장 박현석 ◇공연예술본부 △공연기획팀장 오정화 △예술단협력팀장 이향순 △고객창출팀장 김아림 ◇문화사업본부 △꿈의숲아트센터팀장 정일수

◆**경희대학교병원** △원장 오주형

◆**한양증권** ◇신규선임 △구조화금융본부장 남궁환

◆**NH투자증권** ◇상무 신규선임 △해외영업본부장 김영노

◆**프레시안** △경영국장 김우정

◆**한국일보** △경영지원실 경영지원부문장 김태수

◆**디지털타임스** △뉴미디어팀장 구본규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 김경섭

부음

▲ 이석숭씨 별세, 이원권(경북 포항시 정무특보)씨 부친상 = 21일 오후 5시 14분,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3일 오전 9시. 054-245-0444

▲ 강순석씨 별세, 장석우(키움증권 이사)·장석기(자영업)·장현숙(주부)씨 모친상, 권오규(자영업)씨 장모상, 최영희(강원지방병무청)씨 시모상 = 21일 12시, 강원효장례문화원 201호, 발인 24일 오전 7시. 033-261-4441

▲ 문귀순씨 별세, 임규동(경상일보 디지털미디어국장)씨 모친상 = 22일 오전 5시, 울산 국화원 2층 VIP실, 발인 24일 오전 7시. 010-9231-0055

▲ 이평희씨 별세, 배충현(도서출판 갈라북스 · 아이디어스토리지 대표)씨 장인상 = 22일 오전 3시55분께, 일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30분. 031-900-0444

▲ 박종우(전 경북 구미시 경제통상국장)씨 별세, 박지영(한국주택금융공사 대리)씨 부친상 = 22일 오전, 구미시 해원장례식장 101호, 발인 24일 오전 9시. 054-443-5445